

안녕하십니까, 문과대학장 김민식입니다. 4년 만에 처음 대면으로 열리는 문과대학 졸업식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졸업생들을 만나게 되니 무척 기쁩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모두 겪은 졸업생들이어서, 더욱 애뜻하고 또 한편으로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존경하는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앞으로 졸업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문과대학 동문회장님이시면서 동시에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님이신 유경선 회장님, 친애하는 문과대 동료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졸업생 곁에서 늘 힘이 되어 주신 학부모님과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인공인 우리 문과대학 열 개 학과의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문과대학의 모든 성원들을 대표해서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연세 동산에서 인간이 사용하고 창조한 언어와 문화, 사상과 가치, 삶의 발자취와 경험적 자료들을 탐구하고 배우는 즐거움과 더불어,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함께 살아가는 가치의 소중함을 경험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연세 정신의 중심에 연세 문과가 있고, 그 문과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1919년 여덟 명의 첫 문과 졸업생이 나온 이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재와 리더들이 우리 연세 문과를 거쳐 갔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우리나라의 많은 선각자와 선배님들이 연세 문과를 빛내셨습니다. 이제 연세 문과를 떠나는 여러분이 다시 연세 문과를 빛나게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졸업식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난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라도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졸업생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이 사회와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하고 존경받는 리더와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예언한 대로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안 될 것이라 믿는 사람은 확실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제 나이쯤 되었을 때 지금 저의 예언을 회상해 보시고 이 예언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될 때쯤에는 지금 우리 주변의 리더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리더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러한 신념과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그 목표지점을 가기 위해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하고 절벽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기도 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가치 있다 믿고 있는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국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비교적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팁 하나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룬 것도 없고, 현재 상태도 안 좋은데, 먼저 행복해지라니...,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원하는 뭔가가 되면,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갖고, 부를 갖게 되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공을 했을 때, 행복감이 잠깐 높아지기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수년 전 연세대학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쁜 마음으로 행복감을 유지한 채 연세대학교를 계속 다녔습니까? 그런 행복감은 입학하고 나서 금방 사라집니다. 개강하면서 과제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다시 예전 고등학교 시절의 행복지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역시, 지금까지 신혼 때의 행복감을 계속 유지하고 사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 평상시에 인사나 덕담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빌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제 제가 알려 드리는 방법을 잘 듣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요? 찾아보면 매일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마운 분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표현을 못 한 고마운 분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뿐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감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훌륭하게 성취한 일들을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일입니다. 자기 전에 혹은 걸으면서 과거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어떻게 그 일을 잘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셋째로, 10년 후 혹은 미래에 여러분이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될지를 상상해 보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밝은 표정을 짓고, 좋은 일은 좀 더 과장해서 표현도 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습관화 시켜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꽤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증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하면 뭐가 좋을까요? 행복 그 자체가 좋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행복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공동체, 나아가 인류가 성공적으로 생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더 꾸준히 그리고 더 성공적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팁이 바로 ”먼저 행복해지라!“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여러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 먼저 행복해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졸업생 여러분 모두, 가장 행복한 연세인으로, 그래서 미래 사회의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세계 속에 연세의 자량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계획하는 모든 일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